

“通卷 200號 發刊을 맞이하여”



柳 纘 佑

韓國防衛産業振興會 會長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月刊〈國防과 技術〉이 光復 50주년을 맞는 올해, 10월 1일 建軍 47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通卷 20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9년 1월 첫 선을 보인 이래 月刊〈國防과 技術〉誌는 17년여동안 국내외 국방관련 소식과 방산업계의 동향, 국방과학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나름대로 自主國防의 성공적 실현과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에 일조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愛讀者 여러분과 함께 誌齡 200號를 自祝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 발간에 힘써 온 편집관계자 여러분과, 기고와 취재협조 등을 통해 〈國防과 技術〉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인사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방위산업은 지난 25년동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크게 발전해 왔으나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여건의 악화와 선진국의 技術霸權主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정세는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지역분쟁과 종교 및 민족갈등이 새로운 안보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日本, 中國 등 주변국들의 軍備競爭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 태세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北韓은 金日成 사후 金正日 체제하에서도 核개발을 둘러싼 버랑끝 외교와 군비증강을 계속하는 二重的 태도로 세계 모든 국가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맞아 國家自存과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育成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방산업계도 변화된 경영여건에 적극 대처하여 경쟁력제고와 기술발전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本會는 방위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고 활성화 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國防과 技術〉誌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기술의 배양과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韓國防衛産業振興會와 〈國防과 技術〉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원해 주신 關係當局 및 國軍將兵과 防産業界, 그리고 愛讀者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1995年 10月